

## 삼둥이 시장투어·추사랑 초상화… '슈퍼맨이돌아왔다'

등록 2016.01.03 11:40:00 | 수정 2016.12.28 16:24:28



【서울=뉴스시스】신호령 기자 = 탤런트 송일국(44)의 네살배기 세 아들(대한민국·만세)이 저녁 찬거리 시장보기에 나섰다.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공주 마곡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시작한 삼둥이의 모습이 그려진다.

삼둥이는 송일국이 직접 그린 그림을 들고 시장 심부름 미션에 나섰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아무진 눈빛으로 시장 이곳 저곳을 둘러봤지만 생선가게에서 나물을 찾는 등 녹록지 않은 시장미션에 구슬땀을 흘렸다.

만세는 생선가게 아저씨가 나물을 주지 않는 이유가 돈을 내지 않아서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만세의 획기적인 해결책에 대한은 이내 꼬깃꼬깃 접어둔 돈을 생선가게 아저씨에게 건네며 나물을 주문했다. 촉촉한 눈으로 애타게 바라보는 대한과 만세의 모습에 아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당황해 웃음을 자아냈다.

반면 민국은 토막 난 생선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민국은 손질돼 있는 생선을 발견하자 "아저씨 물고기에 상처 났어요"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애달프게 외쳐 시장 '엄마' 상인들의 미소를 유발했다.



격투기스타 추성훈(41)의 딸 사랑(5)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진이 담긴 '사랑 달력'을 선물하기 위해 직접 포장에 나섰다. 사랑이 그린 그림을 달력과 함께 선물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28)과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수영(26), MC 이휘재(43)까지 사람들의 얼굴을 재해석한 초상화를 선보여 웃음을 유발했다. 3일 오후 4시 50분 방송.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